



지난 10월 2일 어느 대형마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 외국인 153만명 오고 내국인 235만명 나갔다

중국 10월 한 달간 47만5307명이 방한해 규모 면에서 1위

중국·일본·대만 등 3대 방한 시장 관광객이 늘어난 데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152만7832명에 달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1.1%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들어온 외국인보다 나간 내국인이 여전히 많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10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한 달간 47만5307명이 방한해 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가을철 황금연휴인 국경절 기간(10월 1~7일) 방한객이 증가한 데다가 지난해 3월 '금한령'(禁韓令: 한국 단체관광 금지)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5384명)보다 37.6% 늘어났다.

2위는 일본으로 29만468명이 방한했다. 대형 한류 이벤트 개최(10월 20~28일 부산 일사아 페스티벌)에 따른 방한객 증가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1~9일) 방한객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져 지난해 같은 기간(17만9661명)보다 61.7%나 증가했다.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뒤졌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1위다. 3위는 22일 역대 최초 방한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한 타이완이다. 9만9972명으로 규모 면에서 3위다. 저비용 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방노선 취항이 확대(청주·제주공항)하고, 가을 시즌 자유여행객(FTT)이 증가한 데 힘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만1625명)보다 22.5% 늘었다.

4위는 미국이다. 9만8103명이 찾았다. 한반도 평화 무드, 그룹 '방탄소년단' 등 한류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8만명)보다 22.6% 늘어 증가율에서는 타이완을 앞섰다.

5위는 홍콩이다. 6만1473명이 방한했다. 가을 단풍시즌 방한 수요 증가, 지난해 추석 연휴 방한객 감소로 인한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962명)보다 11.8% 증가했다.

이어 6위 태국(5만9941명), 7위 베트남(5만5380명), 8위 필리핀(5만2016명), 9위 말레이시아(4만758명) 순으로 많이 왔다. 이들 동남아 국가에서 방한객이 증가한 것은 LCC 등 항공 노선 확대, 한류 영향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3만8472명)보다 43.9%가 늘어나 증가율 면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10위는 러시아다. 2만8153명이 찾았다. 무블화 환율이 안정한 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 출국한 내국인은 234만7876명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수보다 82만명이나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만1748명)보다 5.2% 증가한 규모다. /뉴시스

## 무주, 전통음악으로 빛나다

반딧불국악대제전 성료...전국의실력자들 한자리에

제1회 무주반딧불국악대제전이 지난 24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전국대회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전통음악 등용문으로서 무주군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사)한국관소리보존회가 주최하고 하립전통예술보존회가 주관했다. 일부부와 신인(노인부 포함), 고등, 초·중등부 경연이 펼쳐진 이날 대회에는 관소리와 가야금병창, 기악 부문에 93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경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참가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국악대제전이 전국 국악인재들의 등용문이 되고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지역보다도 전통의 결이 살아 있기에 전국 국악대제전 역시 자랑스러운 무주의 역사가 될 거라 확신한다"라며 "그 길은 오롯이 여러분께서



내주시리라 믿으며 첫 출발, 첫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가을밤, 아름다운 멜로디' 오늘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가을밤, 아름다운 멜로디' 공연을 오늘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라리넷과 모노오케스트라단(단장 유수영)의 클래식 연주와 낭만보이스 및 소리신여성합창단의 합창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산에 살리라', '벚꽃', '강 건너 봄이 오듯', '향수', '어머니', '그리운 금강산', '우정의 노래' 등 깊어가는 가을 밤 아름다운 멜로디와 합창이 울려 퍼져 감동의 무대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리넷과 모노오케스트라단은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 금산새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10회 이상 정기 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낭만보이스는 모두 같은 기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으로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팀이다.

소리신여성합창단 또한 음악을 사랑하는 단원들이 모여 지난 2016년에 창단된 여성합창단팀이다.

이번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 일곱번째 작은

음악회로 군민의 눈높이와 군민과 밀착해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부안에서 펼쳐질 작은음악회 공연은 안테스의 바람(12월 26일)이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마지막 주)에 준비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합창의 멜로디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는 감성적인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8세 이상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이옥수 기자

## '진안 장애인예술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로 소통

진안군은 지난 23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9회 진안군 장애인예술제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

복지관 이용회원, 주민, 사회단체장 및 유관 기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일년 동안 갈고 닦은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겼다.

1부 기념식은 주간보호센터 가족들의 신명나는 풍물연주로 문을 열었다. 법진공예·원예교실 수익금과 여성장애인들이 만든 공예품·꽃 화분 판매 수익금 60만원을 재가장애인에게 월동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크골프 개인전 3위를 차지한 김정순(지정2급, 진안읍)씨에게 메달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2부 예술제에서는 난타두드리GO, 합창, 청년난타,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복지관 이용회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강당 입구에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배인재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예술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